

순창군, '군민과의 소통' 첫발

최영일 군수, 317개 마을 방문 공감 소통행정 최선

2024년도 갑진년 새해를 맞아 최영일 순창군수가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순창군 317개 전체 마을 방문에 나섰다.

지난해 순창군 최초로 연초부터 15일에 걸쳐 군 전체 마을방문을 실시한 최 군수는 올해 역시 군정을 향한 첫 시작으로 군민과 소통을 위해 17

일간의 일정으로 지역내 317개 마을 전체를 방문해 소통행정을 펼칠 예정이다. 실제로 '군민과의 소통'을 최대 가치로 두고 군정을 이끌고 있는 최군수의 작년 연초방문은 통상적인 읍면 순회방문이라는 틀을 깨고 가장 깊은 곳에서 주민들을 만나겠다는 취지로 11개 읍면을 물론 지역내 317개 마

을 순회한 결과,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어, 지난 4일 생치면 방산마을을 시작한 이번 마을방문 역시 지난해 각 마을별로 접수한 주민불편사항과 마을현안 등 1,090건의 건의사항에 대한 2023년 추진결과를 건의자에게 직접 전달하여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1,090건의 건의사항은 작년 마을방문이 끝난 직후 부서별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체계적인 사업이행을 위해 분기별 진행상황을 점검해 완료 660건, 현재 진행 중인 106건, 2024년 및 중장기 추진 190건 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적극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신념으로 지속해서 마을 깊은 곳까지 모두 방문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 없이 나아가겠다"면서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공감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목소리를 강조하는 최 군수의 군정철학에 따라 동행한 군 실국장 및 주요인원 부서장과 팀장들 또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수는 지난 4일 생치면 방산마을을 방문해 주민불편사항과 마을현안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행정을 하고 있다.

임실군 성원엘리베이터 양해정 대표, 3백만원 기부

고향사랑기부금 나눔 실천

임실군이 지난 3일 새해 들어 고향 사랑기부금 첫 고액 기부자가 탄생했다.

새해 첫 고향사랑기부자는 (유)성원엘리베이터 양해정 대표로 3백만원을 기탁했다.

임실을 감성리 출신인 양 대표는 전주에서 승강기제조업체인 성원엘리베이터를 운영하며 공주대학교에 발전기금을 기탁하는 등 꾸준히 기부를 이어오며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양해정 대표는 "고향 임실의 발전을 응원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에 참여했다"며 "새해를 고향을 위한 기부로 시작할 수 있어 뜻깊고, 더 많은 분들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고향을 잊지 않고 큰 금액을 기부 해주신 양해정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임실을 응원하는 소중한 마음에 보답하도록 임실군 발전 및 주민 복리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군 (유)성원엘리베이터 양해정 대표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3백만원을 기탁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담배품(기부액 기준 최대 30%)을 받는 제도로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

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임실군은 대표 특산품인 임실 치즈·요거트를 시중 가격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담배품으로 제공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 선정

남원시, 국비 4억원 확보... 공공형 1개소·농촌형 4개소

남원시는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 및 가파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공모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지원사업에 공공형 인력중개센터 1개소, 농촌형 인력중개센터 4개소가 선정됐다.

남원시는 2024년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로 남원조합공동사업법인,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로 남원농협·운봉농협·춘향골농협·지리산농협 등 4개소가 2024년 농촌인력중개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원을 확보했다.

농촌형 인력중개센터는 농협에서 농업분야 근로인력을 모집하여 필요 농가에 근로 인력을 알선 중개하며, 공공형 인력중개센터는 운영주체인 남

원조합공동법인이 공동숙식으로 외국인 근로자 체류를 돕고 외국인 근로자를 센터가 고용해 내국인 작업반장이 포함된 작업반을 편성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준다. 남원시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라오스와 협약(MOU)을 체결하였고, 라오스에서 외국인 인력 30여명을 고용하여 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최경식 시장은 "농촌인력 수급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농가와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 제공으로 남원시 농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농촌사회 활성화 및 농촌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우수기관 선정

사업비 1억원 확보

임실군이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사업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군은 농업기계와 축산 유공 지자체로 농기계임대사업자 표창 수상과 함께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를 통해 발농업 기계화 촉진, 농기계 임대사업, 농기계 보급 확대 등 농업기계 분야 시책 추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뤄졌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평가 항목 20개 중 절반이 넘는 항목에서 우수 이상의 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엔 받은 사업비는 군 발농업 기계화를 촉진에 크게 기여

할 전망이다. 군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외에도 농작업 대행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여, 지난해 350여 농가 150ha의 농작업 대행을 완료했다.

이 같은 운영 덕분에 농촌 고령화 및 일손 부족 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올해는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 등 국도비 3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현장 체감형 농기계 임대사업을 확대 운영하고, 임대료 50% 감면 재연장과 논농 수확농작업 대행을 추가 운영하는 등 농작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역할을 적극 해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노인 의료비 '수술 지역 범위' 확대

순창군이 지역 어르신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 중인 의치(틀니), 임플란트,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의 복지 수혜를 높이고자 의료기관 지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순창 관내 또는 전라북도 내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진행한 경우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지만,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지원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지역 범위를 전라북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이면서, 신청일 기준 순창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며, 지원금액은 임

플란트는 1개당 50%(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2개까지 지원하고, 백내장의 경우 1인 25만원, 양안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진단(소견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구비해 순창군보건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서류를 세밀히 검토 후 결정 통보서를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임플란트, 백내장 수술은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되며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 캐릭터 '향이' '몽이' 행정 절차 완료

스마트관광도시 남원의 캐릭터인 '향이·몽이'가 상표권 출원 등의 행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한투원 일대에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남원 스마트관광도시의 캐릭터인 '향이·몽이'는 남원을 대표하는 춘향과 몽룡을 교양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남원시는 2022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의 스마트관광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한투원 일대에 스마트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다국어로 보는 생활민원 안내 책자 배포

남원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역 사회 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몽골어 6개 국어로 제작된 '다국어로 보는 생활민원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이번 안내 책자에는 외국인 주민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생활·환경 분야 △긴급·상담 전화번호 △자주찾는 민원 전화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특히 외국인에게 필요한 체류지 등록, 취업, 근로, 운전면허 등 자세한 정보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남원시는 남원시 가족센터와 협업하여 지난 2021년 다국어로 보는 생활민원안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3개 국어를 시작으로, 외국인 주민 편의를 위하여 6개 국어로 확대 제작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